

#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엉터리... 조기증축 절실

예측보다 이용객 3배 많아 혼잡 도시활성화로 이용객 증가 예상 국토부에 증축 국비 요청 미반영



광주 송정역 /연합뉴스

광주역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난·교통체증 심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 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 증축했지만 실제 3배 가까운 2만5646명(2019년 12월 기준)이 이용해 '엉터리' 수요 예측이라는 주장이다.

광주 송정역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

(금·토·일) 이용객 기준 1일 평균 2015년 5913명에서 2016년 1만 6164명, 2017년 2만 2504명, 2018년 2만 4507명, 2019년 2만 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이용객 1만7151명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송역도 1만9803명이 이용하면서 연면적 2만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은 2만 5646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의 1/4에 불과한 연면적 5754㎡와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송정역과 비슷한 규모인 오송역과 비교하면 1인당 연면적 1.01㎡ 대비 0.22㎡에 불과하고 대합실 면적 또한 1인당 0.27㎡에 비해 0.07㎡로 전체적으로 1/4규모 수준이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증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협소한 송정역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비를 반영하고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 송정역 증축과 관련 2021년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경북도 '수산인의 날' 포항서 열린다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가 포항시로 재선정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당초 포항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돼 내년 기념행사 개최지로 포항시가 재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다.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한 이후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포항(경북)=문봉천 기자



청량산

## 경북 도립공원, 대형버스제한

팔공산 등 4곳, 코로나 재확산 방지 다음 달 15일까지 방역·수시 점검

경북도가 단풍철 행락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립공원 4곳(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단체탐방을 제한하기로 하고 도립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부, 쉼터 등 주요 탐방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별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천 기자 newsmun@

## 울진 한울원전 6호기, 100% 출력 도달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100% 출력에 도달했다.



한울원전 6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해 20일 오후 8시 30분쯤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울6호기는 지난 7월 24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었다.

한울본부는 계획예방정비기간동안 연료교체 및 CO<sub>2</sub> 소화설비 성능개선 등 각종 설비점검·정비를 수행해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향상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9일 있었던 원자로 정지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소 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 전남농업기술원 흑염소산업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체계적 개량·육종 확립 등 연구 대사성질병 등 문제 해결 기대

전남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흑염소 산업을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 국비 4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30억원을 더해 총 74억원을 내년부터 3년 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전문 축산연구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가 주도한다. 축산연구소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 성과의 농가 실용화·산업화를 높이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전남대, 순천대, 도축·가공업체, 염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그동안 흑염소 농가가 꾸준히 주장해 온 체계적인 개량 및 육종 확립, 거세 시기와 사양 관리 표준화, 전용사료 개발, 탕 위주에서 세대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누린내 제거기술 개발 등이다.

사업이 성과를 내면 흑염소의 육량을 늘리기 위해 농가가 외국종과 무분별한 교잡을 하며 발생한 대사성질병, 장기간 근친교배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하락, 불법 도축과 수입산 둔갑 판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최근 흑염소 고기가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육용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흑염소 연구를 통해 흑염소고기 유통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흑염소는 귀농·귀촌인 증가와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해 급속도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0년 5만1000농가에 45만 마리였던 사육 마릿수가 10년 만인 2019년에 1만5000농가, 57만 마리로 3만6000농가가 줄고 12만 마리가 증가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신보재단 이사장에 김승모 (전 BNK저축은행 대표)

부산시가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제10대 이사장으로 김승모 전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를 임명했다.



김승모신임부 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은행에 입행한 이래 40여년 외길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걸어온 금융전문가로서 지역의 금융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9월 12일 전임 이병태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 만료는 2022년 10월 20일까지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경북농학교육지원청

'With Wee' 멘토링 운영

경상북도농학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With Wee'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예방의 일환으로 맞춤형 멘토-멘티를 결성하여 10회기 동안 멘티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With Wee'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멘토는 지역의 상담 전문자원으로 구성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추가적 심리지원과 활동이 필요한 멘티를 대상으로 방과 후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활동은 정서지원, 대인관계, 진로탐색, 학습지원 등 멘티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개인의 감정을 설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봉화(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예천군수, 산물벼 수매현장 찾아 소통행정

농민들 격려·애로사항 청취

김학동 예천군수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산물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산물벼 생산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5개소 RPC(개포 RPC, 청북 DSC, 용궁 DSC, 지보농협 DSC, 남예천농협 DSC)에서 2020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다.

올해 매입 물량은 40kg 기준 31,000포대이며 매입곡종은 일품벼로 매입 후 중간 정산금 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역점을 뒀 농민들이 안전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장 내 모든 인원이



김학동 군수가(우측 세번째) 산물벼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 격려하며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다. /예천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을별 출하 일정을 다르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김 군수는 산물벼 수매가 한창인 현장을 몸소 느끼고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 행정'을 위해 팔을 걷으며 올해 쌀 작황과 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만나 시름을 위로했다.

/예천(경북)=문봉천 기자